

제 2 회

WBF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



WBF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창립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여성 생명과학기술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에의 기여를 지향하는 본 포럼의 이념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과학자의 기회균등을 통한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열매를 맺어 여성생명과학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회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여성생명과학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들의 도움으로 우리 포럼이 계획하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생명과학자들의 능력과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1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여러 회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내신 분들을 분상 및 신진과학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생명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이 제 2회, 3회, 4회, 또 계속하여 우수한 수상자를 내어 여성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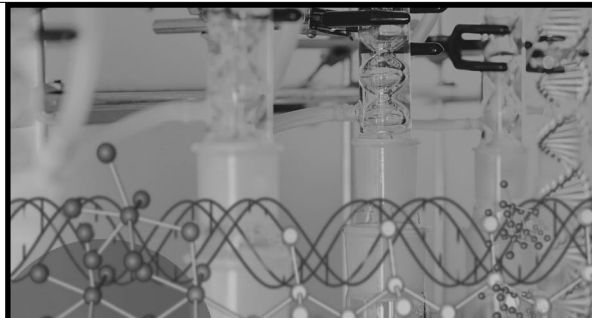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21세기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성생명과학자들이 언젠가 한번은 생각하는 윤리 및 리더십에 대하여 다같이 생각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02년 6월 15일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나도선**

WBF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임원 및 운영위원



회 장 ▶ 나도선 (울산의대)

부 회 장 ▶ 김지영 (경희대), 전길자 (이화여대)

총 무 ▶ 오혜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위원 ▶ 이미옥 (세종대), 이연희 (서울여대), 이경림 (이화여대), 박현성 (서울시립대), 손영숙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숙경 (기톨릭대), 김미나 (울산의대), 김영미 (울산의대), 정선주 (단국대) 문애리 (덕성여대), 이명애 (아주의대), 성미숙 (관동대), 이인선 (계명대), 이용규(동서대), 최미영 (신문대)

이 사 ▶ 나도선 (울산대), 김지영 (경희대), 전길자 (이화여대), 김경순 (명지대), 김명희 (연세대) 김문희(삼천리제약), 김민영 ((주)인지오랩), 김신타(서경대), 김혜원 (울산대), 노정혜 (서울대), 박경숙 (성신여대), 박순희 (식약청), 배경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백경희 (고려대), 손영숙 (한국원자력연구소), 신숙 (삼육대), 신영희 (경성대), 오인혜 (배재대), 오혜영 (식약청), 유명희 (KIST), 유무희 (동아제약), 유영숙 (KIST), 이공주(이화여대), 이연희(서울여대), 이원희(원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이충은 (성균관대), 조성희 (대구효성기톨릭대)

감 사 ▶ 김춘미 (이화여대), 김정숙 (한국한의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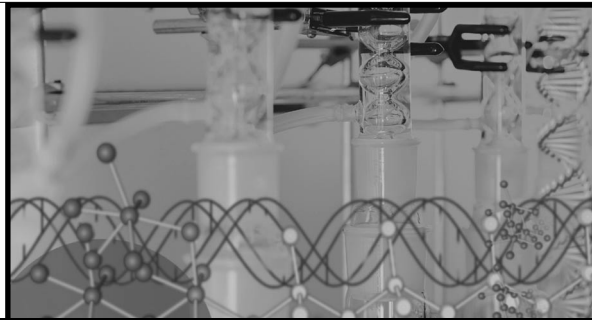
자문위원 ▶ 강순자 (이화여대), 김경례 (성균관대), 김미영 (중앙대), 김성례 (이화여대), 김수자 (경희대), 김영중 (서울대), 노재열 (성균관대), 박연희, 박외숙 (충북대), 박행순 (전남대), 석귀덕 (대구효성기톨릭대), 심정자 (한남대), 유경자 (연세대), 유영상 (동국대), 윤혜숙 (서울대), 이숙연 (삼육대), 이영남 (충북대), 이현순 (성균관대), 이호자 (경희대), 정기화 (덕성여대), 정용자 (경성대), 지현숙 (울산의대), 최명자 (한국과학기술원), 한영희 (상명여대), 홍경자 (기톨릭대), 홍영숙(이화여대)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포상위원회

▶ 김지영 (경희대), 문애리 (덕성여대), 박경숙 (상명대), 박행순 (전남대), 유경자 (연세대), 유명희 (KIST), 윤혜숙 (서울대), 이용규 (동서대), 이충은 (성균관대), 전길자(이화여대), 윤여란 ((주) 로레알)

WBF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



Session

일시: 2002년 6월 15일 (토)

13:00 ~ 13:30 등 록
13:00 ~ 14:30 개회사
환영사
축 사
격려사

사회: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나도선 (회 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정광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1 Session

14:00 ~ 14:40 여성 생명과학자로서의 40년

좌장: 홍영숙 (이화여대 의대)

유경자 (연세대 의대)

14:40 ~ 15:20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법적 문제

좌장: 박행순 (전남대 약대)

정규원 (한양대 법대)

2 Session

15:20 ~ 15:50 Coffee Break 및 기념 촬영

15:50 ~ 16:20 총 회

3 Session

16:20 ~ 16:40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

16:40 ~ 17:10 수상강연

좌장: 윤혜숙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4 Session

17:10 ~ 17:50 Global Standard란 무엇인가

17:50 ~ 18:00 폐회사

18:00 기념 리셉션

좌장: 김수자 (경희대 이학부)

전성철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나도선 (회 장)

WB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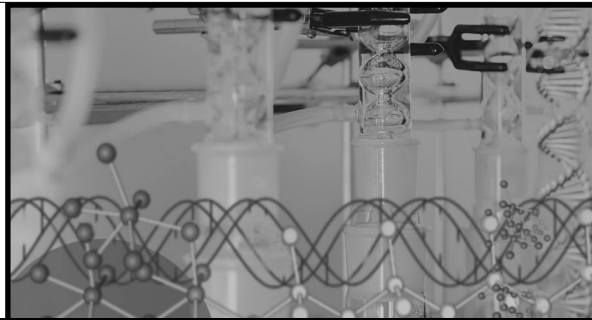
Contents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

- 1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소개
- 2 여성 생명과학자로서의 40년
- 3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법적 문제
- 4 Global Standard란 무엇인가

WBF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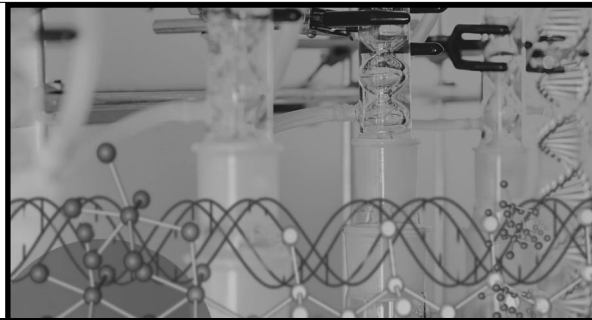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로레알코리아는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시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로레알은 세계 1위의 화장품 회사로서 프랑스의 젊은 화학자인 Eugene Schueller가 염모제를 개발하여 1907년 설립한 회사로, 현재는 로레알 파리, 랑콤, 메이블린, 헬레나루빈스타인, 랄프 로렌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자의 연구정신을 이어받아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1년의 연구 투자비가 4500억원으로 2700명의 연구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1년의 특허수만도 420 개에 이른다. 1999년부터 생명과학분야의 여성과학자에게 시상하는 “로레알 어워드/L’Oreal Award For Woman In Science”를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이 상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추천된 여성과학자들을 심사하여 해마다 5명을 시상한다.

이번에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을 제정하여 한국의 여성과학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상하게 되었는데, 상금은 로레알코리아가 부담하며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은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을 주관하게 된다.

이 상은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중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포상하여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은 본상 1인, 신진과학자상 1인, 공로상 2인을 기관장, 단체장, 및 본 포럼 회원의 추천을 받아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본상과 신진과학자상은 “생명과학분야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여성 과학기술자 및 한국계 여성 과학자 중, 최근 5년간(본상) 또는 3년간(신진과학자상) 탁월한 연구개발성과를 냈거나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분”, 그리고 공로상은 “성별, 전공에 제한 없이 여성과학자의 적극적인 고용, 정책 제정, 제도개선을 통하여 여성 생명과학 인력의 과학기술계(산,학,연 포함) 진출 및 능력 개발에 기여한 분”이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상장 및 부상으로 포상금 본상 오백만원, 신진과학자상 삼백만원, 공로상 각 백만원씩을 받게 된다.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은 2002년 4월 1일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 공고를 하였으며, 2002년 5월 6일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협정 조인식을 거쳐 5월 18일 포상위원회에서 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제 1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여성 생명과학자로서의 40년



유경자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유경자 교수

▶ 연자소개

200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유경자교수님은 196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물학과를 졸업하신 이후, 졸곧 교육과 연구에 몰입하여 40여년을 보내셨습니다. 유경자교수님의 연구생활 40여년의 학문적 여정은 주로 Reproductive Endocrinology 분야중 hypothalamo-pituitary-ovarian axis의 기능과 조절기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분야가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발달하여 왔는가를 회고하면서 그간의 연구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실 것입니다.

유경자 교수님은 1966년에서 1971년까지 미국 Indiana주에 있는 Purdue 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배란과정에서 LH surge 기전”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그 후 postdoctoral research fellow와 research associate로서 미국 Cornell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호르몬-수용체 결합”에 대해 4년간 연구하셨습니다. 1975년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에서 “착상의 기전”, “뇌하수체 gonadotropin 과 GnRH 수용체 유전자 발현 조절”, 그리고 “Stress가 hypothalamo-pituitary-ovarian axis를 impair시키는 기전”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학술지에 10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셨고, 논문외에도 내분비, 및 약리학, 뇌신경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학회 회장, 평의원, 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어, 국내 내분비 약리학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유경자 교수님께서 부군이신 서울대 분자생물학과의 박상대 교수님과 부부 생명과학자로서 걸어오신 일상은, 우리 여성 생명과학자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번 심포지엄은 유교수님을 친근하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학 력

- 1957. 4. ~ 1961. 3. 서울대 문리과대학동물학과 졸업 (이학사)
- 1961. 4. ~ 1963. 2. 서울대 문리과대학동물학과 석사과정 졸업 (이학석사)
- 1966. 9. ~ 1971. 6. 미국 Purdue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이학박사)

▶ 경 력

- 1963. 3. ~ 1965. 8. 서울대 문리과대학 조교 (무급)
- 1965. 9. ~ 1966. 7. 서울대 문리과대학 강사
- 1966. 9. ~ 1970. 8. Research Assistant, Purdue University, Department of Life Science Division of Endocrinology
- 1971. 7. ~ 1973. 6.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Hormone Research Laboratory

▶ 경력

- 1973. 7. ~ 1975. 8. Research Associate,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Reproductive Endocrinology Unit
- 1975. 9.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76. 9.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실험실 실장
- 1977. 7. ~ 1978. 12. Ford Foundation Domestic Consultant
- 1978. 7. ~ 1982. 12. Member of the Panel on "The effects of steroidal contraceptives on Asians" South East and Oceania Region of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 1978. 7. ~ 1981. 6. Member of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Biological Sciences Panel
- 1978. 1. ~ 1978. 9.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Medicine at San Francisco, Department of Physiology
- 1981. 8. ~ 1981. 10.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Biochemical Pharmacology, Schering AG W. Germany
- 1995. 3. ~ 1998.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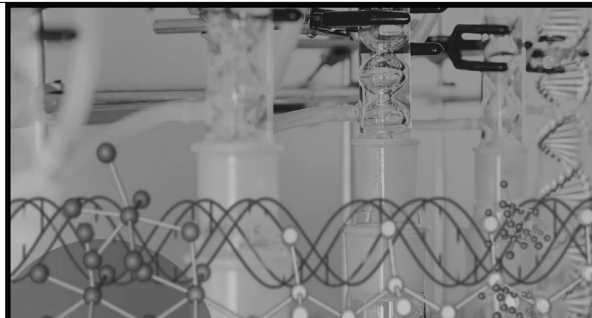
▶ 학술활동

- 1986. 1. ~ 현재 대한약리학회 평의원
- 1996. 1. ~ 1999. 12. 대한내분비학회 부회장
- 1996. 1. ~ 현재 대한뇌신경생물학회 이사
- 2000. 1. ~ 2000. 12.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 연락처

Tel : (02)361~5225/599~3228, Fax : (02)313~1894/534~5357
 E-mail : kzryu122@yumc.yonsei.ac.kr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법적 문제



정규원 >>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 특히 인간 배아 복제나 인간 유전체 기능 연구 등과 같은 분야는 인간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유전체 연구에서는 ELSI라는 분야를 독립적으로 연구토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간 유전체 기능 연구사업에서 ELSI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피검자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피검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피검자의 자기결정권과 정의의 원칙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임신부나 태아 등 연구로 인하여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 집단 등을 피검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사항으로는 소위 informed consent의 문제, 미성년자를 피검자로 선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피검자에 대한 비용 보상의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피검자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검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심사숙고하여 연구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피검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잠재적 피검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한 세 번째 문제는 피검자로부터 채취한 검체 자체의 적절한 이용 및 이의 보관·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검체가 합부로 유출되거나 폐기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체 자체의 보호 문제는 검체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보호 문제와 더불어 소위 검체·정보 은행의 운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인간 대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법적 검토 사항은 연구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의학정보와 연구정보의 분리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개인의 유전적 정보인바,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의학정보와 연결이 되어야 유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 양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로부터 획득된 정보 자체의 보호 문제이다. 이 문제는 획득되는 정보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 그 보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개인 식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 극히 전문적인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겠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의 세부적인 문제들은 연구자들의 자율적 규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IR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의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따라 공동연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유경자 교수

▶ 연자소개

정규원 교수님은 198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의사이시며, 그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다시 형사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포스트 지놈 시대에 생명과학의 윤리문제 (Ethical Legal Social Impact)에 관해 생명과학자의 관점과 법학자의 관점을 편향되지 않게 반영할 수 있는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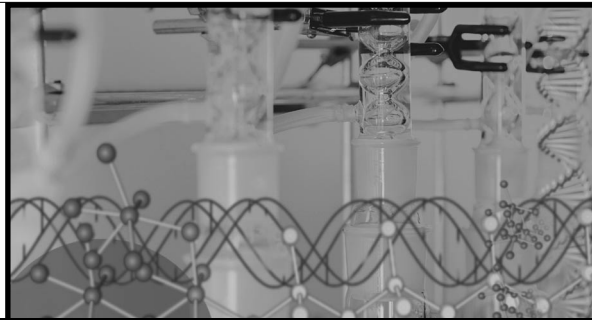
▶ 학력 및 경력

198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9. 6 ~ 1990. 2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1990. 3 ~ 1991. 2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1994.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7.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1999.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2000. 3 ~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연락처

Tel : 02)2290~1309
E-mail : dike1@hanyang.ac.kr or dike1@hanmail.net

Global Standard란 무엇인가



전성철 >> ●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전성철 원장

▶ 연자소개

전성철원장님은 현재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산업지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종대 AGMP (세계경영최고위과정)와 SSMB (sejong syracuse global mba)를 맡고 계시고, 무역위원회 관련된 인지도를 높이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법학 박사를 받으신 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경제 칼럼니스트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일반인에게는 TV 프로그램에서 경제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며 설명하던 모습으로 친근한 분입니다. 현재는 중앙일보 “시평” 원고를 쓰시고, 한국경제신문의 “다산칼럼”도 가끔 쓰십니다. 저서로는 “미국 시장을 향한 도전 (1985. 무역협회)”,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1999. 중앙M&B)”, “전성철의 경제를 푼다 (1999. 청년정신)”, “청와대가 보인다. 대통령이 보인다 (2001. 조선일보사)” 등이 있습니다.

▶ 학 력

- 1969~1973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 1978~1983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경영학석사
- 1980~1983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법학박사

▶ 경 력

- 1983~현재 미국 뉴욕□ 변호사회 회원
- 1983~1990 미국 Reid & Priest 법률사무소 통상담당선임변호사(Partner)
 - 슈퍼 301 조 협상 관련 한국정부 고문변호사
 - 대미 환율 절상 압력 관련 무역협회 고문변호사
- 1991~1995 Kim&Chang 법률사무소 국제 변호사(국제통상 및 투자담당)
- 1997~1999 Kim&Chang 법률사무소 국제 변호사(국제통상 및 투자담당)
- 1995~1996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
- 1993~1994 조선일보 논설위원
- 1998~1999 MBC 경제프로(“경제를 푼다”) 진행자
- 1999~1999 MBC 경제프로(“경제 매거진”) 진행자
- 2000~2001 MBN “전성철의 시사토크” 진행자
- 1988~현재 경제 관련 칼럼니스트
- 2001~2001 KBS “전성철의 경제 포커스” 진행자
- 2001~2002 세종대학교 부총장
- 1999~1999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 회장
- 1999~현재 부드러운 사회연구원장(현)

다음은 중앙일보의 “시평”에 실린 전성철 교수님의 칼럼으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학력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없애자는 아이디어가 정부 내에서 제기돼 잔잔한 파문이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일과성 사건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평등사상의 일부가 내연하다 자연스레 돌출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사실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가진 두 가지 가장 큰 이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상이라는 점이다. 왜 그럴까? 자유를 주면 사람은 반드시 불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 성격, 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긴다. 즉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살게 된다. 이렇게 생긴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정부가 개입해 소위 ‘평등화’ 작업을 한다. 즉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일부 빼앗고 그 대신 평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류는 자유를 빼앗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시장이 훼손될수록 떡이 줄어들다는 것을 또한 배웠다. 공산주의 같이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면 모두가 거지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평등을 위해 자유를 얼마나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평등일까?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고민을 한 문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이 심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이 문제로 엄청난 고심을 했다. 그 결과 이 자유와 평등간의 조화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 첫째, ‘차별’ 하는 것은 평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균등’ 한 것이 ‘평등’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 개 일한 사람이나 열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 개의 월급을 주는 것은 다섯 개 만든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열개 만든 사람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다. 다섯 개 일한 사람에게는 다섯 개를 주고 열개 일한 사람에게는 열개를 주는 것, 즉 차별하는 것이 도리어 평등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근거있는 차별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차별하지 않으면 누가 발전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가고, 일 잘하는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분명히 차별 덕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무한히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차별을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흑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이 될 수 없

고, 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가 될 수 없고, 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이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즉 인종, 성별, 나이 같은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 (fundamentally unfair)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근거있는 차별은 평등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 정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노동, 기업,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 평등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다. 하나는 '평등' 과 '균등' 을 혼동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차별을 무조건 평등 정신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평등 정신은 여성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 전라도, 경상도 등을 따지는 차별, 이런 데 발동하는 것이지 아무 곳이나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 어설픈 평등 정신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자유를 너무 제약받고 있지 않은가?